

## 루터 신학에서 발견되는 ‘종교/신학의 탈정치화’의 모순적/역설적 변명에 관한 연구

이동춘 (장로회신학대학교)

### I. 서론

### II. 루터의 ‘종교/신학의 탈정치화’에 대한 의심

1. ‘종교/신학의 탈정치화’로부터 듣기
2. ‘정치’와 ‘정치적인 것’으로 의심하기

### III. 루터를 ‘정치적인 것’으로 읽기

1. ‘세상 권력: 어느 정도까지 복종해야 하나’
2.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들에게 보내는 글’
3. ‘교회의 바벨론 감금’
4. ‘군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 IV. 루터의 ‘정치적인 것’에서 한국 교회의 정치이해를 읽기

1. 루터 신학의 탈정치화의 모순적/역설적 변명과 한국 교회의 현실
2. 신학은 정치적이거나 정치적인 것일 수밖에

### V. 결론

DOI: <http://dx.doi.org/10.21050/CSE.2016.35.03>

---

• ABSTRACT •

---

A Study on a Paradoxical and Contradictional Exculpation of  
Apoliticalization of Religion/theology Found in Luther's Theology

Lee, Dong-Chun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This research examines how a church and a pastor should treat politic in a way of inheriting reformed confession, because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can be asserted or rejected according to an ideology, a stance, and a preference. To clarify this, this study delves into the stance of Luther who was a starting point of protestant and a strong advocate of reformation. To begin with, the research doubts on his thought that a church, a pastor, and a theology must be irrelevant to a politic, because there are paradoxes and contradictions in his writings such as: 'Secular authority: To what extent it should be obeyed', 'An open letter to the Christian nobility', 'The Babylonian captivity of the church', and 'Whether soldiers, too, can be saved'. After studying these writings, this study answers to the question of "Can the theology of Luther be apolitical?" and "Can our 'being theology' and 'doing theology' be apolitical?" by examining the reality of the Korean church. This research criticizes on the opinion that Luther had declared the apoliticalization of theology and faith, but it argues that a church and the theology must do and speak about the politics.

**Key words:**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Luther, Political Participation  
Apoliticalization of Theology, Paradoxes and Contradictions

---

## I. 서론

'종교개혁가 루터(Martin Luther)는 교회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교회와 목사는 정치와 무관해야 한다.'라는 말을 교회 현장에서 종종 듣는다. 다수의 목사와 교인들은 목사가 정치에 관여하는 일을 두고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심지어는 엄중히(?) 경고한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보수적 정치성향을 가진 이들이나 진보적 정치성향을 가진 이들이나 모두 다르지 않다. 이들 모두 교회와 목사의 정치 행동에 대해 자신들의 입맛과 상황에 따라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나뉜다. 보수도 정치참여 지지와 반대가 있고, 진보도 지지와 반대가 있다. 과연 교회는 정치와 무관한가? 과연 목사는 정치적 행동을 하면 안 되는가?

본 논문은 교회와 목사가 정치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는 것이 종교개혁신앙을 계승하는 것인가에 관심이 있다. 이를 위해 루터는 어떤 입장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sup>1)</sup> 종교개혁자들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루터의 입장을 살피려는 것은 종교개혁의 상징으로서 갖는 높은 위치 때문이다. 그런데 본 논문은 교회/목사/신학이 정치와 무관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에 의문을 품는다. 이는 그의 많은 글들에서 그의 주장과는 모순되는 것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특히 그의 글들 중, '세상 권력: 어느 정도까지 복종해야 하나'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들에게 보내는 글' '교회의 바벨론 감금' '군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보더라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루터의 이 네 편의 글을 살펴 본 후, '루터의 신학이 과연

---

1) 본 논문은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종교개혁의 선봉장이었던 루터를 조명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 루터의 정치이해를 다룬다.

탈정치적일 수 있는가와 더불어 ‘우리의 신학 작업과 신학 행위가 탈정치적일 수 있는가’에 답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본 논문은 종교/신학의 탈정치화 주장에 대해 회의적이고 비판적이다. 세상에는 정치적이지만 않은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sup>2)</sup>

## II. 루터의 ‘종교/신학의 탈정치화’에 대한 의심

### 1. ‘종교/신학의 탈정치화’로부터 듣기

종교/신학의 탈정치화를 주장하는 이들에 따르면, 종교 혹은 신학이 정치로부터 벗어나야 진정한 종교성 혹은 신학의 본의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종교 내부에서만 주장이 아니다. 종교 외부에서도 이 주장은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교분리(政教分離)만이 바람직한 정치체도라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이 주장에는 소위 ‘두 왕국, 두 정부론’<sup>3)</sup>을 바탕으로 한 루터의 ‘종교/신학의 탈정치화’ 주장이 큰 역할을 했다. 포레스터(Duccan B. Forrester)는 이를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다.

루터는 기독교 신앙을 비정치화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제도가 아니라 영적인 친교이기 때문에 교황과 황제 사이에서 중세 내내 계속된 논쟁을 무의미하게 여겼다.... 그러나.... 루터의 기독교 신앙의 비정치화는 현체제에 강한 정당화를 제공한다.<sup>4)</sup>

- 
- 2) 필자는 “인간은 본성상 정치적 동물이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 동의한다.  
3) “루터 자신은 결코 ‘두 왕국론’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단지 이 이론에 대한 최근의 논의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다. 이 용어는 1922년에 처음으로 사용된 것 같다.” Bernhard Lohse, 이형기 옮김, 『루터 연구 입문』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7), 255.  
4) Duccan B. Forrester, 김동건 옮김., 『신학과 정치』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57-9.

즉, 포레스터가 이처럼 평가할 수 있었던 것은 종교적 사유 방식에서 정치적 요소를 떼어 내려는 루터의 열정적인 믿음이 글로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완전한 자유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당 구속되어서는 안 되고, 또 사실상 그래어도 안 된다.”<sup>5)</sup> 이러한 루터의 입장은 그의 『탁상담화』(卓上談話)에서 밝힌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에서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그리스도는 정치가도 경제가도 아니었다.”(christus non curat politikam aut oeconomiam)<sup>6)</sup>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그의 신학의 성격을 결정한다면, 이 신학적 입장으로도 루터는 ‘신학은 탈정치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도 남을 만했다. 더욱이 당시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여기던 권력의 확장, 유지, 보존의 수단으로서의 성사(聖事, Sacraments)의 수(數), 즉 “신품성사와 그것에 수반되는 위계제적 요소들”을 제거하였다는 것은, 루터가 정치적인 것들을 실제로 제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7)</sup>

또한 1552년 비텐베르크에서 진행되고 있던 과격파 개혁운동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 것을 보면 정치가 루터의 주요 관심사는 아니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인간적인 성급한 방법으로 개혁을 시도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 근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의 말씀이 일을 이루시도록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간섭을 배제하면서 수종 들어야할 뿐이다. 우리는 말씀을 전파할 뿐이고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기뻐신 뜻에 맡겨야 할

5) Bertram Lee Woolf., ed. *Reformation Writing of Martin Luther*, (London: Lutherworth, 1952), 1:345. Sheldon S. Wolin, 강정인 외 2인 옮김, 『정치와 비전 1』 (서울: 후마니타스, 2007), 239.에서 재인용.

6) W A Tischreden, 1, 470, 70, 932. 지원용 편저, 『루터사상의 진수』 (서울: 컨콜디아사, 1986), 254.에서 재인용.

7) Sheldon S. Wolin, 강정인 외 2인 옮김, 『정치와 비전 1』 (서울: 후마니타스, 2007), 250.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나는 오로지 설교하고 가르치고 저술할 뿐 아무도 무력으로 억제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말씀이 일을 이루시도록 수종들뿐이다.<sup>8)</sup>

‘오직 믿음(sola fide), 오직 말씀(sola scriptura)’을 주장하던 루터에게서 이런 말을 듣는 것은 자연스럽다. 오직 말씀만이 모든 일을 이루시도록 우리는 수종자로서의 역할을 할뿐이라는 그의 입장은 ‘종교/신학의 탈정치화’를 말하는 또 다른 표현이다. 그리고 그가 주장하는 ‘종교/신학의 탈정치화’는 그의 ‘십자가 신학’으로 최종 정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세상에 대해, 또는 국가/정부에 대해 자만해 있고 승리에 차 있는, 그래서 짐짓 점잖을 빼고 있는 교회를 향해 “십자가의 뿌리를 환기”시킴으로 교회는 더 이상 정치의 공간이 아님을 주지시켰다.<sup>9)</sup>

교회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아니다. 또한 우리보다 앞서 살아갔던 사람들도 아니고, 또한 우리 다음에 올 사람들도 아니다... 왜냐하면 당신과 나는 수천 년 전에 살지 않았으나 교회는 우리 없이도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다... 교회와 우리를 분명히 붙들고 계시는 분은 결코 다른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 계시고, 오늘도 계신 분’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분께 우리 자신을 드러야만 한다. 다시금 말하건 데,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장차 오실 분이요, 영원히 계실 분’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분은 그 일을 하실 것이다.<sup>10)</sup>

8) 김명혁, “루터의 두 왕국에 대한 개념-정치윤리적 측면,” 『성경과 신학』1-0(1983), 153-4에서 재인용.

9) Alister E. McGrath, 정진오, 최대열 옮김, 『루터의 십자가 신학』 (서울: 컨콜디아사, 2001), 197.

10) WA(D.M. *Luthers Werke. Kritische Gesamtausgabe*. Weimar, 1883.) 54.470.8-26. Alister E. McGrath, 정진오, 최대열 옮김, 『루터의 십자가 신학』 (서울: 컨콜디아사, 2001), 197-8.에서 재인용.

이는 일종의 '신학과 정치와의 선긋기'다. '그 분만이 교회를 유지/운영 하신다'는 말은 '교회가 정치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가 교회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또한 앞에서 살펴본, 말씀의 수종자 개념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의 '기존 질서에 대항하는 것을 반대하는 무저항'이다.<sup>11)</sup> 하나님의 권력 혹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에는 순종하는 것이지 저항하는 것이 아님을 신학적으로 채택한 것은 '종교/신학의 탈정치화' 선언이다. 이렇게 해서, 루터의 소위 '두 왕국론' 혹은 '두 영역론'을 통해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고, 교회는 국가에 대해, 국가는 교회에 대해 불간섭적이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이들에 의해 정교분리는 주장되고 있다.

그런데 루터의 '종교/신학의 탈정치화' 선언은 과연 탈정치적이었을까? 그가 선언한 그대로 인정되고 받아들여졌을까? 루터의 '두 왕국론' 혹은 '두 영역론'은 정교분리를 말하는 것일까? 루터가 이 이론을 '율법과 복음'으로 이해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일까? 루터의 가르침이 "한 동안 개신교 정치이론의 중심요소가 되면서 유럽의 정치사상의 주류에 다시 들어왔음"<sup>12)</sup>은 사실이다. 그러나 루터의 주장은 탈정치화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해도 혹은 비의도적이었다고 해도 그의 행위는 결국 '정치' 혹은 '정치적' 혹은 '정치적인 것'이었다.<sup>13)</sup> 특히 루터의 정치성향을 논함에 있어 빠지지 않는 '두 왕국론' 혹은 '두 영역론'이 확정된 경계선이나 분리가 아니라 상황적인 것<sup>14)</sup>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이것의 설명을 '율법

11) W. D. J. Cargill Thomson, 『마르틴 루터의 정치사상』 (서울: 민들레책방, 2003), 27-9.

12) 위의 책, 29.

13) 루터가 비정치화를 주장하고 추진했어도 결국은 정치적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는 비정치적으로 행동했을지라도 정치는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가 두 왕국을 날카롭게 구분했지만 이 구분 자체가 정치적이다. 왜냐하면 왕국이라는 말 자체가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이 논문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설명할 것이다.

과 복음'으로 비교한 것으로 알 수 있다.<sup>15)</sup> 이것으로도 루터의 신학은 탈정치적으로 보기보다는 정치적인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 2. '정치'와 '정치적인 것'으로 의심하기

정치(政治)란 일반적으로 “권력 획득과 권력 행사와 관련된 제반 행위”로 간주되곤 한다.<sup>16)</sup> 본래의 정치는 도덕 혹은 도덕적인 것으로 이해되었지만<sup>17)</sup> 오늘날 정치는 이처럼 권력과 연관되어 이해되고 있다. 그렇다면 교과서적으로 정의된 오늘의 정치 이해로부터 루터의 ‘종교/신학의 탈정치화’를 볼 때,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앞에서 살펴보았다시피, 루터는 당시 교회가 매우 중요시 여긴 성사의 수를 줄이거나 제거하는 일을 단행하였다. 당시 성사는 교회가 권력을 획득하는 수단이자 권력을 유지 및 행사하는 수단이었다. 이것은 영적 권위로서 권력이었기에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수단이었다. 그런데 이 수단을 비판하고 제거했다는 것은 권력에 맞섰다는 것이고, 정치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라는 것을 교과서적으로 볼 때, 루터는 ‘정치를 했다. 이는 루터가 ‘하나님의 의’와 ‘말씀’을 강조함에서도 동일한 평가가 가능하다. ‘의’(義)는 법적(法的) 언어

14) “이 두 ‘왕국’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나뉘어져 있는 확고부동한 영역은 아니다. 기독교인은 어느 한 쪽에서만 살 수 없다. 그는 양쪽에서 다같이 살아야 하며, 원하던 원치 않든 간에 그는 양쪽에서 계속해서 활동해야 한다.” H. Bornkamm, *Luther's Doctrine of the Two Kingdoms in the Context of His Theology*,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6), 8. Justo L. Gonzalez, 『기독교 사상사 III』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90), 98.에서 재인용.

15) Justo L. Gonzalez, 『기독교 사상사 III』, 96-8.

16) 진덕규, 『현대 정치학』 (서울: 학문과사상사, 1993), 19. 정치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마키아벨리(Niccolo Machiavelli)의 책 『군주론』(Il Principe)의 영향력이라 보인다. Niccolo Machiavelli, 강정인·김경희 옮김, 『군주론』 (서울: 까치, 2008)

17)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정치학의 시조들은 정치가 늘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기에 제재(制裁)의 의미를 담고 있어서 권력이고,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으로서 명령이니 권력이다.<sup>18)</sup> 루터가 강조한 '의로서 만'과 '말씀으로 만'은 권력의 행사다. 그러므로 필자에게 루터의 신학은 '정치신학' 혹은 '정치적 신학'으로 보인다.

그런데 교과서적 정치 이해가 아닌 정치 이해의 파격을 가져 온 카를 슈미트(Carl Schmitt)의 '정치적인 것'의 개념으로 루터의 신학을 이해해도 그의 신학은 탈정치적이지 않다. "국가의 개념은 정치적인 것의 개념을 전제로 한다"<sup>19)</sup>는 명제 하에 정치를 이해하는 슈미트에게 주목하는 것은 "정치적인 행동이나 동기의 원인으로 여겨지는 특정한 정치적 구별이란 적과 동지의 구별이다."<sup>20)</sup>는 정의다.

적과 동지의 구별은 결합 내지 분리, 연합 내지 분열의 가장 강도 높은 경우를 나타낸다는 의미를 가지며, 상술한 도덕적·미학적·경제적 또는 다른 모든 구별을 그것과 동시에 적용하지 않아도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존립할 수 있다. 정치상의 적이 도덕적으로 악할 필요는 없으며, 미학적으로 추할 필요도 없다... 적이란 바로 타인, 이방인이며, 그 본질은 특히 강한 의미에서 낯설고 이질적인 존재라는 것으로 족하다. 따라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적과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 충돌은 미리 규정된 일반적 규정에 의해서도, 또한 '국외적이고' 따라서 '공정한' 제3자의 판결에 의해서도 해결될 수

18) "루터의 주장에 담긴 정치적인 요소는 자신이 지닌 권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교화에 대처하기 위해 내린 처방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만약 교황이 계속해서 성서의 명백한 명령을 어긴다면, 그 때에 기독교인들에게 성서라는 기본법을 따르고 교황의 명령을 무시할 의무가 있었다... 성서적이기보다는 좀 더 정치적인 논변을 통해 루터는 교황권에 대해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저항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Sheldon S. Wolin, 강정인 외 2인 옮김, 『정치와 비전 1』, 244-5.

19) Carl Schmitt, 김효전·정태호 옮김, 『정치적인 것의 개념』 (서울: 살림, 2012), 31. 슈미트는 "국가적=정치적이라는 등식은 옳지 못하며 오해를 유발한다"고 보았다. 위의 책, 33.

20) 위의 책, 39.

없다.<sup>21)</sup>

슈미트의 정치 개념으로 볼 때, 루터가 종교개혁의 정황에서 원하는 원하지 않든 누구에게는/누군가는 적으로, 누구에게는/누군가는 동지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때, 루터의 신학 행위는 ‘정치적인 것’이었다. 대표적인 예로, 교황과는 적이 된 것이고, 황제와는 동지가 된 것이다. 그리고 슈미트가 “동지와 적이라는 개념은 구체적·존재적인 의미”<sup>22)</sup>라며 “적대관계의 현상형태로서의 전쟁”<sup>23)</sup>의 불가피성을 말했는데, 이를 루터의 신학적 상황에 견주어 볼 때, 종교개혁이 전쟁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루터의 신학은 ‘정치적인 것’의 신학이다.

그런데 좀 더 지평을 넓혀 루터의 신학을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sup>24)</sup>로 읽어보면 어떨까? 자크 랑시에르(Jacques Ranciere)는 슈미트가 ‘정치적인 것’으로 읽은 것의 모순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비판한 학자들<sup>25)</sup>의 것을 또 다시 극복하기 위해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라는 개념<sup>26)</sup>을 제시한다. 정치에 대한 랑시에르의 모든 사유는 ‘치안

21) 위의 책, 39-40. “적이란... 현실적 가능성으로서 투쟁하는 인간의 전체이며, 바로 그러한 전체와 대립하는 전체이다. 따라서 적이란 공적인 적만을 말한다... 사적(私敵)은 아니다.” 42.

22) 위의 책, 41.

23) 위의 책, 제3장.

24)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Aux bords du politique)라는 말은 자크 랑시에르(Jacques Ranciere)가 본격적으로 정치를 논하기 시작하면서 내 놓은 첫 번째 책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정치학에서 하나의 정치 개념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보기에 루터의 신학을 평가하는 또 하나의 잣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25) 조르조 아감벤, 상탈 무페, 발리바르, 네그리, 랑시에르, 지척 등과 같은 소위 좌파 정치철학자들에 의해 카를 슈미트의 정치 개념은 극복의 대상으로 연구된다.

26) ‘정치’와 ‘정치적인 것’에 대한 전설의 기원과 종언이라는 양 끝이 되는 ‘가장자리’가 핵심 개념으로서 “정치의 테두리를 설정하는 경계, 치안과 정치가 충돌하는 정치적인 것 내의 경계”를 말한다. Jacques Ranciere, 양창렬 옮김,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 서』 (서울: 도서출판 길, 2008), 5.

(police)'과 '정치(la politique)'를 구별하는 일에서 출발한다.<sup>27)</sup>

치안의 본질은 공백과 보충의 부재로 특징지어진다. 없는 것에 대한 배제야말로 치안 원리이다. 정치의 본질은 공동체 전체와 동일시되는 몫 없는 자들의 몫을 보충하면서 이 타협을 교란시키는 것이다. 치안은 정치의 논리를 부정하지만, 정치의 본질은 가시적인 것과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개입이며 치안으로부터 정치를 분리하는 것이다.<sup>28)</sup>

그에게 '치안'이란 쉽게 말해 통치행위 일반을 의미한다. 치안은 어떤 자리나 기능을 분배하거나, 혹은 몫의 분할과 관련된 행위들을 수행한다. 나아가 그런 분배나 분할에 대한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체제를 유지하고 정당화하는 행위가 바로 치안의 기능이다. 그리고 이러한 치안의 기능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랑시에르가 소환하는 것이 바로 '정치'다. 치안의 체제는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자들, 제 모습을 드러낼 수 없는 자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랑시에르에게 정치란 이와 같은 치안의 작동을 교란시키는 행위다. 이를테면 루터가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던 교황의 절대 권력, 성서의 독점, 교회의 독단, 면죄부 행위, 성사의 전횡 등과 같은 것을 세상에 드러낸 일, 이것이 '정치'인 셈이다.

또한 랑시에르의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 개념은 권력에 의해 주변으로 밀려난 주변부를 소수자로 읽고, 그 소수자들이 중심부와 자리를 나누는 애씀을 정치로 본다.

정치의 부흥은 중심부의 제국주의에 자신들의 종별성을 맞세우는 공동체 주체의 투쟁들이 덧붙여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정치적 발명의 의미

---

27) 위의 책, 247.

28) 위의 책, 249.

를 되찾음으로써 가능해진다. 논쟁적이고 계정적인 주제들을 발명하고, 중심과 주변, 보편과 특수 사이의 치안적 나눔을 다시 쪼갬으로써 가능해진다.<sup>29)</sup>

물론 그는 정치를 경영으로 보고, “경영자를 대통령으로 뽑는 탈정치의 시대, 계급투쟁 없는 활동적인 삶을 예찬하는 시대”<sup>30)</sup>에 대한 고민으로 정치를 보았기에 자리를 나눈다는 것은 소수자의 몫부림 일 수 있다. 그러나 정치의 종언을 고하는 시대에 주변자 스스로를 말하는 존재, 사유하는 존재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랑시에르의 입장이었기에<sup>31)</sup> 이러한 정치적 수고를 자리 옮김으로 읽고 이를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라는 용어로 정리한 것이다.<sup>32)</sup> 그렇다면 랑시에르의 정치 개념으로 루터를 읽을 때 어떤 읽기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소수자들의 자기 자리를 갖기 위한 수고로 읽을 수 있다. 즉 민중의 손에 들려져야 할 성서와 사제의 손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하나님을 뵈 수 있는 만인제사장직이 소수자인 평신도의 본래 자리라면, 이는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가 된다.

그러므로 살펴 본대로, ‘정치’ ‘정치적인 것’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라는 개념에 루터의 신학 혹은 신학 행위를 대입해보았을 때, 그의 신학은 이에 다 적용될 수 있다. 많은 경우 중에 하나인, 우노 시게키(宇野重規)와 같은 이들은 “진정한 종교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세속 권력은 필요하다고 본 루터의 신념은 신앙을 내면화하고 비정치화한 데 따른 역설적 귀결이었다.”<sup>33)</sup>라는 평가로 루터 신학을 탈정치화한 신학으로 읽지만, 루터의 신학은 결코 탈정치화를 할 수 없다. 이미 “루터의 새로운 신학, 그리고

29) 위의 책, 29.

30) 위의 책, 36.

31) 위의 책, 37-8.

32) 위의 책, 30-31.

33) 우노 시게키(宇野重規), 신정원 옮김, 『서양 정치사상사 산책』 (서울: 교유서가, 2014), 122.

거기서 도출된 그의 사회·정치적 신조들은 북부 유럽의 광범위한 지역으로 퍼져 나가 이내 공식적으로 수용<sup>34)</sup>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루터의 파문 이후 점차 많은 지역과 국가가 루터교의 공국이 되거나 루터교를 수용하였다<sup>35)</sup>는 것은 루터는 어떤 이유로든 정치와 거리를 둘 수 없는 입장이 된 것이다.

### III. 루터를 ‘정치적인 것’으로 읽기

#### 1. ‘세상 권력: 어느 정도까지 복종해야 하나’

이 논문은 1523년 출간된 것으로 삭소니 주 영주인 듀크(John Duke)와 그 주변 정치지도자들의 요청에 의해 루터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밝힌 논문이다. 이 논문은 그의 정치사상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세상 권력의 본질과 그 한계에 대해, 그리고 그리스도인 국민과 그리스도인 통치자들의 책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루터는 우선 왕국과 인류를 이원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그의 논문의 전체 분위기를 나타낸다.

우리는 인류를 두 계급으로, 즉 아담의 자손들과 그 밖의 사람들로 나누어야 한다. 전자는 하나님 왕국에 속하고 후자는 세상 왕국에 속해 있다. 하나님 왕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모든 신실한 신자들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 왕국에서 왕이며 주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모두 세상 왕국에 속해 있으며 율법 아래 놓여 있다.<sup>36)</sup>

34) Quentin Skinner, 박동천 옮김, 『근대 정치사상의 토대 2: 종교개혁의 시대』 (서울: 한국문화사, 2012), 68.

35) 위의 책, 68-72.

36) LW 45:88, 90. 김주환, 『마르틴 루터의 삶과 신학 이야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 그의 대립구도로서의 두 왕국론은 끊임없는 투쟁 가운데 있다. 그러나 두 왕국은 대립과 갈등의 관계이기는 해도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보았다.<sup>37)</sup>

세상 권력은 하나님께서 사악한 자들을 징벌하고 선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약받음 없이 그리고 사람들에 관계없이, 즉 세상 정부가 교황, 주교, 사제, 수도승, 수녀들 혹은 그밖에 누구에게 영향을 주든지 그리스도교 왕국에서 그 직무를 자유롭게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sup>38)</sup>

그러나 그는 세상 왕국은 그 권력을 사용함에 있어 신앙 문제에 관하여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sup>39)</sup> 이는 정부 통치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포함되어 있다.<sup>40)</sup> 그러나 서로의 행동 양식이 양극단에 있기는 하지만, 영적 왕국은 말씀을 통하여 정의로운 인간을 만들어내고, 세상 왕국은 칼을 가지고 지상의 평화와 정의를 만들어 간다는 면에서 상호보완적 관계임을 주지시켰다. “어느 정부도 상대방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충분하지 않다.”<sup>41)</sup> 이는 각 정부 고유의 역할 하에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말한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에 공공선(公共善)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과 교회와 국가는 권력자들 간에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

2002), 115.에서 재인용.

37) LW 45:89, 91. 위의 책, 117-8. 루터는 이 두 왕국을 두 나라, 두 정부로도 이해하며, 이 둘을 율법과 복음의 관계로 이해를 한다. 그러므로 이 둘을 상호보완적이다. Paul Althaus, 이희숙 옮김, 『말틴 루터의 윤리』 (서울: 컨콜디아사, 1989), 87-9.

38) LW 44:130. 김주한, 『마르틴 루터의 삶과 신학 이야기』, 119.에서 재인용.

39) LW 45:105. 위의 책, 120.

40) LW 45:114. 위의 책, 121.

41) LW 45:92. 위의 책, 122.에서 재인용.

루터의 하나님 왕국과 세상 왕국 이해는 일반적으로 종교의 탈정치화로 읽혀지거나 이원론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그러나 상호보완적 관계를 인정했다는 것은 관계를 정치적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물론 두 권력 혹은 권위를 대립 관계로 본다 해도 정치적 이해이지만, 보완적 관계로 본다는 것은 더욱 정치적 이해일 수밖에 없다. 힘의 균형과 견제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물론 하나님의 힘과 대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왕국을 교회로 대체해서 볼 때, 교회의 힘과 세상 정부의 힘이 보완적이라면, 힘들 간의 균형과 견제를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정치'로, '정치적'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 2.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들에게 보내는 글'

루터가 1520년 내놓은 이 논문은 천년 가까이 서방세계의 사회, 경제, 법조, 종교 사상계의 기반을 이루고 있던 이른바 '로마교도들의 세 가지 담'과 '공의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악폐'에 대해 논박하는 신학논문이다.<sup>42)</sup> 그 세 가지 담은 '세속적 계급 위에 있는 영적 계급', '성서해적자인 교황과 교황 무오설', 그리고 '교황과 공의회'를 말하고, 악폐는 '교황의 속된 마음'과 '추기경들과'과 '교황청'을 말한다. 이러한 제도와 조직, 규범과 관습을 신학적으로 비판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 루터의 이 논문은 출판과 동시에 독일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무엇보다도, "조국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려는 루터의 복음적인 조국애"<sup>43)</sup>가 이 논문에 깊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sup>44)</sup>

루터의 이 세 가지 담을 부패의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이것을 "기만"이

42) Martin Luther, 지원용 옮김,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 3대 논문』 (서울, 컨콜디아, 2003).

43) 위의 책, 20.

44) 위의 책, 25-7.

라는 말로 정의하였다.<sup>45)</sup> 이는 당시의 분위기로 충격적인 선언이자 일종의 전쟁 선포로 볼 수 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였다. “저희로 하여금 이 짚과 종이로 된 담을 무너뜨리게 하시며, 또 죄를 벌하고 악마의 간계와 허위를 밝히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교적인 회초리를 자유롭게 쓰게 하여 주옵소서.”<sup>46)</sup> 그는 이 기도 후, ‘세속적 계급 위에 있는 영적 계급’이라는 첫 번째 담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교황, 주교들, 사제들 및 승려들을 ‘영적 계급’이라고 부르고, 군주들, 영주들, 직공들 및 농부들을 ‘세속적 계급’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혀 조작적인 것이다. 실로 이것은 순전한 거짓과 위선이다.<sup>47)</sup>

그리고 ‘성서해적자인 교황과 교황 무오설’이라는 두 번째 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둘째 담은 한층 보잘 것 없고 무가치하다. 그들은 비록 그들의 모든 생애 있어서 성서로부터 아무 것도 배우지는 않으나 성서의 유일한 교사는 되려고 한다. 그들은 스스로 유일한 권위자라고 생각하며, 교황은 악인이거나 선인이거나 간에 신앙문제에 있어서 오류를 범할 수 없다고 되지 못한 거짓말로 우리에게 납득시키려고 한다. 그러면서 그들을 거기에 대하여 한마디도 증거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그렇게도 많은 이단적이고 비그리스도교적이며 실로 부자연스럽기까지 한 규정들이 교회법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sup>48)</sup>

---

45) 위의 책, 29.

46) 위의 책.

47) 위의 책. 루터는 여기서 베드로전서 2:9과 요한계시록 5:9-10을 인용해 믿는 자들의 보편적인 제사장직인 ‘만인제사장직’을 천명하였다. 평신도는 소위 아래 계급이 아니라 동등한 계급이라고 선포하였다. 이는 교황이라는 절대 권력을 향한 절대 저항이자 전쟁선포로 볼 수 있다. 위의 책, 30-1.

48) 위의 책, 38-9.

세 번째 담인 '교황과 공의회'에 대해서는 앞의 두 담이 넘어지면 재물에 넘어진다고 하면서 마태복은 18장의 가르침에 따라 교황과 공의회를 책망하고 억제하는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고 하였다.<sup>49)</sup> 그리고 세 개의 담을 논한 후, '공의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악폐'를 제시하고 설명하면서 교황과 추기경들과 모든 학자들이 이 악폐를 폐기하지 않는다면 "과문과 위협에 개의치 말고 평신도들과 세속적인 당국자에게 이 일을 행하게 하라"며 강하게 권면하였다.<sup>50)</sup>

이렇게 루터가 조목조목 지적하고 비판한 세 가지 담인 '세속적 계급 위에 있는 영적 계급', '성서해적자인 교황과 교황 무오설', 그리고 '교황과 공의회'와 악폐인 '교황의 속된 마음'과 '추기경들과'과 '교황청'은 반드시 성서적으로 개선되거나 폐지되어야 할 법과 제도였다. 그러나 이는 행정적 의미의 법과 제도가 아닌 정치권력이었고, 더욱이 절대 권력이었다. '감히' 신성불가침(神聖不可侵)의 영역인 절대 권력이었다. 소위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향해 비판하고 도전하고, '감히' 대안을 제시했다는 것을 탈정치화로 읽는 것은 모순이다. 오히려 '정치적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 역설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절대 권력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력으로 대항했기에 '정치적인 것'으로 읽어야 한다. 또한 성직자들만 사제직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 신자들도 사제직을 갖는다는 것을 천명한 사실을 성직자 절대 권력에 대한 이동과 분배를 요구한 것으로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카를 슈미트가 그의 '정치적인 것'의 개념에서 우(友)와 적(敵)으로 세상을 이해해야 한다고 한 것으로 볼 때도, 루터가 교황과 함께 하는 자는 적(敵)이고, 성서와 함께 하는 자는 우(友)라고 구분했으니 루터의 신학은 '정치적인 것'이었다.

49) 위의 책, 42.

50) 위의 책, 47.

### 3. '교회의 바벨론 감금'

이 논문은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들에게 보내는 글'이 나온지 2달 만에 낸 논문으로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성례관을 신학적으로 조리 있게 반박한 논문이다. 성례전의 왜곡된 가르침을 '바벨론 감금'으로 표현한 이 논문은 권력을 유지/보존/확장함에 있어 성례전이 중심 도구의 하나로 사용됐다는 사실을 폭로한 것이다. 세례, 성찬, 참회, 안수례, 견신례, 결혼례, 도유식이라는 칠성례로 불리는 성사를 통해 권력/권위를 유지/보존/확장하고 있는 로마 카톨릭 교회를 향해 세례, 성찬, 참회, 이 세 가지만을 인정해야 한다는 루터의 주장은 그의 신학이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를 볼 수 있다. 루터는 이 논문의 서론 끝에 다음의 말을 놓았다.

먼저 나는 일곱 성례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세 가지 곧 세례와 참회와 떡만이 있음을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세 가지는 다 로마 교황청에 의하여 비참하게 유수되어 왔으며, 또한 교회는 모든 자유를 박탈당해 왔다.<sup>51)</sup>

루터는 서문 끝에서 “교황청에 의해 비참하게 유수”된 세 가지 중 하나인 떡(성찬)을 비판함에 있어 교황청은 평신도들에게서 포도주를 빼앗은 것이고, 떡도 빼앗을 수 있다며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자유를 유수하는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교회는 평신도들에게서 전 제단의 성례를 빼앗고 또 그들에 관하여 그리스도의 제도를 완전히 무효화할 수 있을 것이다.”<sup>52)</sup> 그는 이를 “사악하고 전제적(專制的)”인 것이라고 하였다.<sup>53)</sup> 그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제도 대신에 “행위와 행위에 대한 규정들이 밀치고

51) 위의 책, 168-9.

52) 위의 책, 175.

53) 위의 책, 181.

들어왔다”며 이것들에 의해 우리는 “바벨론 유수처럼 자기 나라에서 내쫓기고 모든 귀중한 소유물들을 약탈당하였다”며 미사의 운명을 애통해 했다.<sup>54)</sup> 그리고는 평신도를 성례나 미사로 감금시킨 사제들의 본래 자세는 권력이 아니라고 하였다. “성례를 봉헌하고 배풀 때 사제들은 우리의 종들이” 된다며 권력으로 군림했던 사제들을 종(從)으로 정의하였다.<sup>55)</sup>

루터는 교회와 사제들이 성사의 대부분을 비성서적 혹은 탈성서적으로 만들었고 이를 권력의 확장/유지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보았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박탈하고 유수한 것으로 보았다. 정치에 있어 ‘자유’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루터의 성사의 문제 지적은 최소한 ‘정치적’이었고, 분명 ‘정치적인 것’의 입장이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평신도들로부터 성례를 ‘빼앗았다’ ‘약탈했다’ ‘감금했다’는 표현과 이를 ‘전제적(專制的)’이라고 정의한 것은 정치 논리다. 그리고 사제를 평신도의 ‘종’으로 격하시킨 것은 일종의 권력의 배분으로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로 볼 수 있기에, 그의 신학을 정치 신학 혹은 정치적 신학으로 읽게 한다.

#### 4. ‘군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루터가 1526년에 쓴 이 논문은 “농민전쟁에 관련된 사건들의 맥락에서” 쓰였지만 정치적인 견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가진 군인들이 전쟁을 수행하는 직에 대해 어떤 이해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나는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 즉 기독교 신앙이 이 신앙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는데 군법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적들에

---

54) 위의 책, 209.

55) 위의 책, 212.

게 행하기를 원하는 대로 군인이 되는 것, 전쟁에 나가는 것, 찌르고 죽이는 것, 강탈하고 방화하는 것 등과 병립할 수 있는가를 다룬다. 이런 일이 최악이고 불의한 것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양심을 줄 것인가? 기독교인들을 단지 선한 일만 하며 사랑하기만 해야 하고 아무도 죽여서는 아니 되고 아무에게도 어떤 해를 가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sup>56)</sup>

그는 이에 대한 답으로 로마서 13장과 베드로전서 2장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답을 하였다. 물론 루터는 침략적인 전쟁도 옹호한 것은 아니다. 방어적인 전쟁만을 허용했다. 양심에 의한 책임감과 의무감에 의해 그 사명을 수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벌주고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평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칼을 제정하셨다는 바로 그 사실은 전쟁과 살상이 전시와 군법에 따라 일어나는 다른 모든 것들과 함께 하나님에 의해서 제정되었다는 것을 강력하고도 충분히 증거한다.<sup>57)</sup>

전쟁은 특수한 상황이지만 평화주의자들이 볼 때 이 또한 옳지 않다. 그러나 루터는 전쟁이 필요하다면 전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나님은 필요한 전쟁은 허용하신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이 전쟁에 관한 질의에 응답한 논문이지만 ‘정치적인 것’을 담고 있다. 이것을 더욱 정치로 읽게 되는 것은 그가 농민전쟁에 대해 보인 태도는 이 논문에서의 지침과는 다른 지침이었기 때문이다. 루터 자신의 입장이 누구와의 관계가 더 유리하나에 따라 미묘하거나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정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의 말은 이렇게 상황에 따르기에 모순이고, 그

56) LW 46:95. Bernhard Lohse, 이형기 옮김, 『루터 연구 입문』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7), 93-4.에서 재인용.

57) LW 46:95. 위의 책, 94.에서 재인용.

가 탈정치적을 주장해도 결과적 행위는 정치적이다. 그리고 그 영향력도 정치적이다. 그러므로 그의 종교/신학의 탈정치화 주장은 모순과 역설의 반복이다.

#### IV. 루터의 '정치적인 것'에서 한국 교회의 정치이해를 읽기

##### 1. 루터 신학의 탈정치화의 모순적/역설적 변명과 한국 교회의 현실

앞에서 살펴 본 루터의 글, '세상 권력: 어느 정도까지 복종해야 하나'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들에게 보내는 글' '교회의 바벨론 감금' '군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통해 필자는 루터의 신학이 정치 신학이거나 정치적 신학임을 볼 수 있었다. 혹은 '정치적인 것'이고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였음을 볼 수 있었다. 루터의 주장을 십분 받아들인다 해도, 결국 그의 '종교/신학의 탈정치화' 선언은 의도한 대로 되지 않았다. 그의 진심이 탈정치화에 있었을지라도 그의 상황은 정치와 결코 무관할 수 없었다. 그의 '종교/신학의 탈정치화' 선언은 역설이거나 모순일 수밖에 없다.

루터의 신학이, 필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와 무관한 신학이 아니고, 혹은 정치를 외면할 수 있는 신학이 아니라는 사실을 무엇보다도 그가 1524-25년에 일어난 '농민전쟁'을 대하는 태도에서 큰 시비를 찾아낼 수 있다. 키르히너(H. Kirchner)는 루터가 농민전쟁에 대해 "대체로 놀랄 만큼 충분히 사건의 추이를 알고 있었다"고 말한다.<sup>58)</sup> 이는 본인이 여행을 하면서 직접 얻은 정보도 있지만 상당량이 전달받은 정보였다는 것이다. 그가 직간접으로 얻은 정보에는 '독일 남부 농민들의 12개조' '슈바비안 연맹과 콘스탄스호수 조합 사이에 체결된 바인가르텐 조약' '메밍엔 협약'

58) H. Kirchner, "루터와 농민전쟁", 지원용 편역, 『루터사상의 진수』 (서울: 컨콜디아사, 1986), 248-9.

등을 포함해 농민전쟁과 관련된 사람들에 관해서도 있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농민전쟁에 대해 쓴 루터의 6개의 글, ‘평화예의 권고’ ‘바인가르텐 조약에 관한 서문과 결어’ ‘도적질과 살인하는 농민 떼거리들에게 반박함’ ‘토마스 뮌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두려운 이야기’ ‘1524년 6월 4일 오순절 설교’ ‘농민들을 가혹하게 반박한 책에 대한 공개장’이 쓰였는데, 이 모두가 신학적 입장을 일관하고 있었다.<sup>59)</sup> 신학자로서 신학적 입장으로 모든 것을 말하고 답하려 했던 그를 뮌처(Thomas Müntzer)는 1524년에 쓴 ‘비텐베르크의 얼빠지고 안이하게 사는 인간에 대한 답변 그리고 매우 필연적인 항변’에서 루터를 일컬어 불경한 악당들인 제후들에게 아부하는 ‘아침장이 악당’이라고 혹평하였다. 물론 이 이야기를 들은 몇 년 뒤, 루터는 자신이 언제나 세속적인 것은 다루지 않고 영적인 것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교황과로부터 늘 이런 식의 비난을 받아왔다고 하며 자신은 오직 신학적이고, 탈정치적인 사람임을 변명하였다.<sup>60)</sup>

그러나 이것은 글자 그대로 변명인 것은 현존하는 통치체제를 계속해서 용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후들의 권력을 인정하였고, 심지어 이를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고 옹호하고 지지하였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또한 동시에 명분만 있다면 비기독교적인 행동도 기독교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루터는 자기모순에 갇힌 것이다. 레더콕(John H. Redekop)은 이처럼 모순에 갇힌 루터를 냉정하게 평가한다: “그는 그런 견해에 대한 성서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그런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은 정치권력에 의해 자행된 어떤 악행도 정당화할 수 있다!”<sup>61)</sup> 결국 신학은 탈정치적

59) 위의 책, 249-253.

60) 위의 책, 254.

61) John H. Redekop, 배덕만 옮김, 『기독교 정치학·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답하다』 (서울: 대장간, 2011), 70. 루터신학자들은 루터신학의 특징 중 하나로 진노와 은혜, 율법과 복음, 심판과 구원, 저주와 용서, 계시된 하나님과 숨여계신 하나님, 전능하심과 무력하심 등과 같이 정반대의 개념을 한 데 이어 한 문장으로 처리하는 경우를 든다. 이를

이어야 한다고 주장은 하지만 현실로는 그의 말과 행위는 정치였고, 정치적인 것이었다. 이는 그의 주장과 실제 행동이 모순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신학은 결코 정치와 무관할 수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종교의 탈정치화 주장은 모순이다.

필자는 한국 교회 안의 소위 보수적 신앙/신학을 가진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진보적 신앙/신학을 가진 사람에게서도 루터의 이런 모순에 갇혀 있는 것을 본다. 자신은 탈정치적이다 라며 상대에게 탈정치적일 것을 종용하는 것은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서 볼 수 있다. 특히 진보적 신앙/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보수적 신앙/신학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 '정치적 발언을 하지 말라' '정치 개입을 말라'며 종용하고 훈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은 의아하다. 진보는 신학이 정치를 말하고 정치에 개입해야 한다고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수적 입장을 가지 사람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탈정치화의 종용이 진보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은 의문일 수밖에 없다.

최근 2016년 3월 3일에 있었던 소강석 목사의 '국가조찬기도회' 설교<sup>62)</sup>를 두고 보수와 진보 모두가 상대를 향하든 내부를 향하든 설전(舌戰)을 했다. 그는 개성공단 폐쇄를 큰 틀에서 볼 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북한의 변화와 한민족 평화를 이루기 위한 그랜드 디자인이기에 잘

---

'변증적 긴장관계'(dialektische Spannung)라는 교의학 개념으로 설명한다. 물론 헤겔 철학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말한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이유는 대상의 속성을 단면으로 규정하지 않고 모순(호)된 개념 안으로 끌어들이 해석의 다양성을 열어놓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11103890659&fref=nf> 그러나 필자는 이것 또한 모순으로 읽힌다. 다양성이라는 말은 상황적 대처를 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이 밝히고 있다시피 루터의 정치적 태도가 상황적이라면 그는 정치신학을 펼친 것이다.

62) 최근 2016년 3월 3일에 있었던 소강석 목사의 '국가조찬기도회' 설교는 본 논문에서 필자가 지적하는 한국 교회 내의 정치 이해에 관한 모순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예라고 본다.

한 결단이라고 평가하고, 통과된 테러방지법이 더 일찍 통과됐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내고, 대한민국 건국과 정체성을 왜곡하는 역사 교과서 내용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박대통령을 다른 국가 대통령들과 비교해 추켜세우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러한 그의 정치적 발언이 설전의 대상이 됐다. 이를 두고 목사가 정치적이었으며 비난을 하는 입장이 있었고, 잘 했다는 입장도 있었다. 이는 주로 보수의 입장이었고 진보의 입장은 정치개입이었다고 비난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소목사가 개성공단 폐쇄, 테러방지법 통과, 역사 교과서 수정, 박대통령의 지도력 등을 비판했다면 정치개입이라는 말이 진보 진영에서 나왔을까? 보수 진영으로부터 잘 했다는 칭찬을 받았을까? 내 입장, 내 이념과 맞는 것이었다면 ‘정치개입’, ‘정교분리’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혹시 이런 말을 해야 했다면 무게 없이 언급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소위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한국 교회에서도 볼 수 있는 종교/신학의 탈정치화 주장은 모순적/역설적 변명에 불과하다.

## 2. 신학은 정치적이거나 정치적인 것일 수밖에

필자는 이 지점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한다. ‘신학(神學)이란 무엇인가? 신에 관한 학문이자 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인간학이다. 이는 판넨베르크(Wolfhart Pannenberg)가 신학을 “신에 대한 인간의 인식론적 노력”<sup>63)</sup>으로 이해한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기독교 윤리학의 학문적 태도로 보면, 신학은 인간학에 가깝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인간/인간사를 들여다보기 때문이다. 이는 신학은 시대정신(Zeitgeist)을 간과(看過)하지 않는 학문으로서 인간이 질문하는 모든 것을 답할 책임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는 삶의 모든 영역,

63) W. Pannenberg, *Systematic Theology*, vol. I, (Edinburgh:: T & T Clark, 1991), 1.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연관된 모든 삶에 응답하는 학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학의 정의만으로도 신학은 정치적이거나 정치적인 수밖에 없다.

루터는 창세기 2장 주석을 통해, 정치를 경제와 대비(對比)하여 경제는 창조 본래부터 있었던 것인 반면 정치는 인간의 타락 이후 창세기 4장의 가인 시대에 나타난 것이라 설명하였다.<sup>64)</sup> 그러므로 정치는 “타락한 자연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라고 읽었다.<sup>65)</sup> 루터의 이러한 정치 읽기는 인간의 삶에서 정치는 예외나 제외가 될 수 없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신학의 탈정치화는 모순에 빠진 것이고, 신학은 당연히 정치적이거나 정치적인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루터의 정치와 경제 읽기를 찾아낸 마르크스(Karl Marx)는 루터를 두고 “가장 오래된 독일의 정치경제학자”라 하였다.<sup>66)</sup> 그리고 그의 책 자본론(Das Kapital) 제1권에 루터의 ‘목사들에게 고리(高利)에 반대하도록 호소하여’(1540)라는 글을 한 페이지나 인용하였는데,<sup>67)</sup> 루터는 이 글에서 고리대금업을 악마 다음가는 인류의 적이라고 규정하고는 이들은 까마귀의 밥이 되어야 한다고 저주를 하였다. 이러한 루터의 글을 인용한 이유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축적과 부를 비판하기 위한 것인바 노동자에게 돌아갈 몫을 착취하는 자본가는 루터가 저주한 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마르크스가 루터를 독일의 가장 오래된 정치경제학자로 추상했다는 것은 루터의 신학사상을 정치적인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

64) Victor Westhelle, “Power and Politics: Incursions in Luther’s Theology”, Christine Helmer, ed., *The Global Luther-A Theologian for Modern Times*,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9), 294-5.

65) 위의 책, 295.

66) Marx and Engels, *Collected Works*, 29:448. 위의 책, 297.에서 재인용.

67) Karl Marx, 김수행 옮김, 『자본론』 1권 하, (서울: 비봉출판사, 1989), 750-1.

결국 신학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정치를 말하는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고, 권력에 대한 담론을 다루는 것이기에 정치적인 것이거나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

## V. 결 론

한국 개신교회가 신학과 교회가 정치를 논함에 있어 루터의 입장에 기대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그는 개신교의 시작인 종교개혁의 선봉자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 이전의 신학자들이나 기독교에 관한 담론을 언급한 이들에게서 신학과 교회의 정치의 거리(距離)를 찾아내기도 하지만 루터에게서 정치의 거리가 어떠한지 하는지를 묻는 것이 자연스럽다.<sup>68)</sup> 그런데 그가 취한 입장이 시간의 길이만큼 다양한 해석을 낳는다. 루터주의, 그리고 신루터주의 내에서도 루터의 정치적 입장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그러나 대부분은 루터의 탈정치화 선언을 루터주의의 기본 입장으로 둔다. 즉 루터의 신학을 종교와 정치의 분리로 이해하며 탈정치화로 읽고 그들 자신도 탈정치화를 주장한다.

그러나 본 논문은 오히려 그의 주장에서 모순과 역설을 보았다. 그는 당시 정치의 중심이자 재생산지인 교황과 교회에 저항을 했기 때문이다. 이 저항은 교황과 교회가 내세운 문서에 반대하고, 전통의 질서를 바꾼 것이기에 비록 그가 신학의 탈정치화를 주장했을지라도 현실적으로 정치의 중심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역설할 뿐이었다. 오히려 정치의 한 복판에서 정치와 싸우거나 정치와 대화를 한 것이다. 그러므로 신학 안과 밖에서 신학을 향해 탈/비정치적이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부족하다. 몰트만(Jürgen Moltmann)이 지상에서 뿐만 아니라 심지어 천상에도 ‘비정치적인 신학/교회’는 없다는 말은 본 논문의

68) 물론 칼뱅도 포함되지만 본 논문은 루터에 집중하기 위해 루터를 말한다.

결론에 큰 정리가 된다.

소박하며 정치적 자의식이 거의 없는 신학이 있다. 그러나 비정치적 신학이란 지상에도, 천상에도 없다. 자기들의 정치적 '삶의 자리'가 사회에 공개되기를 원치 않는 교회가 있다. 그들은 그에 대해 침묵하고, 은폐하고, 베일을 씌우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정치적으로 '중립'임을 자처한다. 이에 반해 정치적 자의식을 가지고 현존하는 기독교 그룹들도 있다. 그러나 비정치적 교회란 역사에도, 하나님의 왕국에도 없다.<sup>69)</sup>

그러므로 오히려 신학을 통해 건강한 정치담론과 방법론을 생산하는 것이 설득력도 있고 의미도 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는 이러한 태도, 즉 신학의 정치담론 생산에 참여하는 것이 바르다. 물론 이런 정치담론이 정의와 사랑을 옹골케 담고 있느냐의 논쟁은 언제나 있겠지만, 신학이 정치를 말하고 담론을 생산해야한다는 것에 더 이상 시비는 불필요하다는 것이 본 논문의 결론이다.

---

69) Jürgen Moltmann, 조성로 옮김, 『정치신학 정치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214.

## 참고문헌

- 김명혁, “루터의 두 왕국에 대한 개념-정치윤리적 측면”, 『성경과 신학』 1-0(1983), 153-172.
- 김주한, 『마르틴 루터의 삶과 신학 이야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 지원용, 『루터의 사상』, 서울: 컨콜디아사, 1991.
- 지원용 편저, 『루터사상의 진수』, 서울: 컨콜디아사, 1986.
- 진덕규, 『현대 정치학』, 서울: 학문과사상사, 1993.
- 이형기, 『종교개혁 신학사상』,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88.
- 宇野重規(우노 시게키), 신정원 옮김, 『서양 정치사상사 산책』, 서울: 교유서가, 2014.
- Althaus, Paul. 이희숙 옮김, 『말틴 루터의 윤리』, 서울: 컨콜디아사, 1989.
- \_\_\_\_\_. 이형기 옮김, 『루터의 신학』,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4.
- Arendt, Hannah. 『전체주의의 기원 1』, 서울: 한길사, 2006.
- \_\_\_\_\_. 『전체주의의 기원 2』, 서울: 한길사, 2006.
- \_\_\_\_\_. 『인간의 조건』, 서울: 한길사, 2006.
- Bonhoeffer, Dietrich. 손규태의 옮김, 『윤리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 Dieterich, Veit-Jakobus. 『누구나 아는 루터, 아무도 모르는 루터』, 서울: 홍성사, 2012.
- Forrester, Duccan B. 김동건 옮김., 『신학과 정치』,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 Gonzalez, Justo L. 『기독교 사상사 III』,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90
- Heywood, Andrew. 조현수 옮김, 『정치학-현대정치의 이론과 실천』,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0.
- Lohse, Bernhard. 정병식 옮김, 『마틴 루터의 신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2.
- \_\_\_\_\_. 이형기 옮김, 『루터 연구 입문』,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7.
- Luther, Martin. 박문제 옮김,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2.
- \_\_\_\_\_. 지원용 옮김,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 3대 논문』, 서울, 컨콜디아, 2003.

- Machiavelli, Niccolo. 강정인 · 김경희 옮김, 『군주론』, 서울: 까치, 2008.
- Marx, Karl. 김수행 옮김, 『자본론』 1권 하, 서울: 비봉출판사, 1989.
- McGrath, Alistar E. 정진오, 최대열 옮김, 『루터의 십자가 신학』, 서울: 컨콜디아사, 2001.
- Moltmann, Jürgen. 김군진 옮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1.
- \_\_\_\_\_. 조성로 옮김, 『정치신학 정치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 Ranciere, Jacques. 양창렬 옮김,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서울: 도서출판 길, 2008.
- Redekop, John H. 배덕만 옮김, 『기독교 정치학-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답하다』, 서울: 대장간, 2011.
- Schmitt, Carl. 김효전 · 정태호 옮김, 『정치적인 것의 개념』, 서울: 살림, 2012.
- Skinner, Quentin. 박동천 옮김, 『근대 정치사상의 토대 2: 종교개혁의 시대』, 서울: 한국문화사, 2012.
- Thomson, W. D. J. Cargill. 『마르틴 루터의 정치사상』, 서울: 민들레책방, 2003.
- Wolin, Sheldon S. 강정인 외 2인 옮김, 『정치와 비전 1』, 서울: 후마니타스, 2007.
- Bayer, Oswald. trans., Trapp, Thomas H. 『Martin Luther's Theology-A Contemporary Interpretation』, Michigan: WM. B. Eerdmans Publ., 2008.
- Estes, James M. 『Peace, Order and the Glory of God』, Boston: Brill, 2005.
- Pannenberg, W. 『Systematic Theology』, vol. I, Edinburgh: T & T Clark, 1991.
- Westhelle, Victor. "Power and Politics: Incursions in Luther's Theology", Christine Helmer, ed., 『The Global Luther-A Theologian for Modern Times』,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9.

논문투고일: 2016년 06월 29일

심사개시일: 2016년 07월 08일

게재확정일: 2016년 08월 05일

---

 • 국 문 초 록 •
 

---

본 논문은 교회와 목사가 정치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는 것이 종교개혁신앙을 계승하는 것인가에 관심이 있다. 왜냐하면 정교분리(政教分離)가 이념에 따라, 또는 입장에 따라, 또는 취향에 따라 주장(主張)도 되고 거부(拒否)도 되기 때문이다. 이를 밝히기 위해 종교개혁의 주창자였던 루터, 개신교의 시발점이었던 그는 어떤 입장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본 논문은 교회/목사/신학이 정치와 무관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에 의문을 품는다. 글쓴이로서는 그의 주장이 역설과 모순으로 읽혀지기 때문이다. 이는 그의 많은 글들에서 발견되는 바다. 그의 글들 중 다음의 4개의 글, '세상 권력: 어느 정도까지 복종해야 하나'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들에게 보내는 글' '교회의 바벨론 감금' '군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통해서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글들을 살펴 본 후, 우리의 이야기인 한국 교회 현실을 통해 '루터의 신학이 과연 탈정치적일 수 있는가'와 더불어 '우리가 하는 신학과 신학행위가 탈정치적일 수 있는가'에 답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본 논문은 종교/신학의 탈정치화 주장에 대해 회의적이고 비판적이다. 세상에는 정치적이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 논문은 루터가 신학/신앙의 탈정치화를 선언했다고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 의심을 갖기 때문에 이 의심의 논거를 통해 교회와 신학은 정치를 말하거나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을 하려고 한다.

**주제어:** 정교분리, 루터, 정치참여, 신학의 탈정치화, 역설과 모순

---